



미국 증시, 지표 및 실적 호조에 전강후약 장세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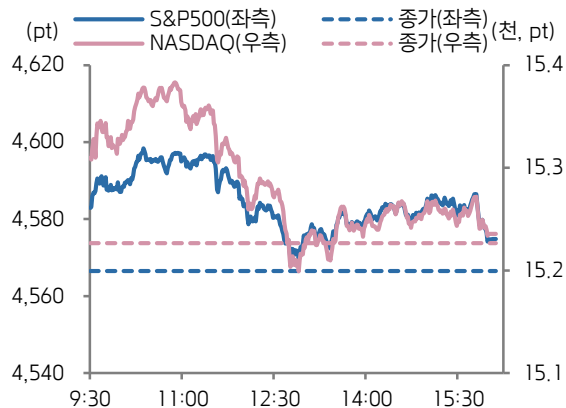
26 일(화) 미국 증시는 신규 주택판매, 컨퍼런스 소비심리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, 실적시즌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으나, 장 중반 이후 테슬라 등 주요 테크주들의 차익실현 압박 속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는 전강후약의 장세로 마감(다우 +0.04%, S&P500 +0.18%, 나스닥 +0.06%, 러셀 2000 -0.72%).

컨퍼런스보드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3.8pt(예상 108.3pt, 전월 109.8pt)로 3개월 만에 반등했고,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도 전월대비 큰폭 개선(-3→12pt)되면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. 전일 장 마감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(-3.9%)은 매출 소폭 부진, EPS 예상 상회로 혼조된 결과를 보이면서 장외로 2% 정도 상승했지만, 가이던스가 예상대비 약했다는 평가에 현물 시장에서 하락. UPS(+7.0%)는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급등한 반면 록히드마틴(-11.8%)은 가이던스가 실망하면서 급락하는 등 실적 경과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보임. 한편 전일 급등한 테슬라(-0.6%)는 소폭 하락.

업종별로 에너지(+0.7%), 유틸리티(+0.6%), 헬스케어(+0.5%)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반면, 산업재(-0.6%)와 커뮤니케이션스(-0.6%)는 하락. 이중 헬스케어 업종은 전일 모더나의 유럽 백신 부스터샷 승인에 이어 금일 FDA가 화이자의 백신을 아이들에게 사용을 승인으로 상승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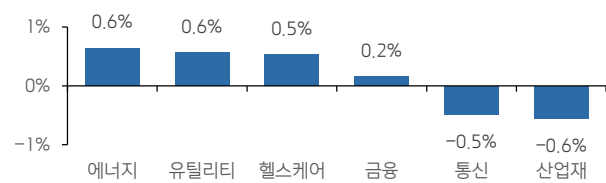
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마이크로소프트(매출 453.2억 달러, 예상 439.7억 달러), AMD(매출 43.1억 달러, 예상 41.2억 달러), 비자(매출 65.6억 달러, 예상 매출 65.3억 달러)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장외로 상승 중. 알파벳은 실적 호조에 불구하고(매출 651.2억 달러 vs. 예상 633.4억 달러) 2% 하락 중이며 텍사스인스트루먼트는 EPS 2.07달러(vs 예상 2.05달러)로 예상을 소폭 상회했지만, 매출 46.4억 달러(vs 예상 46.6억 달러)는 예상을 소폭 하회하면서 약 4% 하락 중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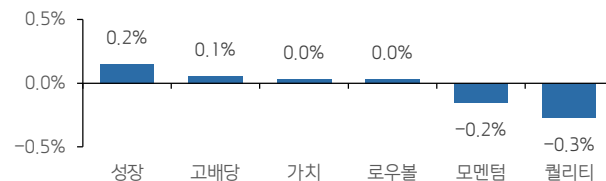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574.79	+0.18%	USD/KRW	1,167.05	-0.1%
NASDAQ	15,235.71	+0.06%	달러 지수	93.96	+0.15%
다우	35,756.88	+0.04%	EUR/USD	1.16	-0.03%
VIX	15.98	+4.86%	USD/CNH	6.38	+0.01%
러셀 2000	2,296.08	-0.72%	USD/JPY	114.14	-0.02%
필라. 반도체	3,392.96	+0.02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5,936.69	+0.39%	국고채 3년	1.942	+1.2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2.460	+0.3bp
Eurostoxx50	4,223.97	+0.85%	미국 국채 2년	0.440	+0.4bp
MSCI 전세계 지수	744.35	+0.28%	미국 국채 10년	1.608	-2.3bp
MSCI DM 지수	3,159.88	+0.28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297.26	+0.32%	WTI	84.65	+1.06%
MSCI 한국 ETF	82.03	+0.72%	금	1793.4	-0.74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72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0.52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06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168.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반도체,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들의 위축됐던 투자심리 호전 가능성 2. 기아차, LG 디스플레이 등 주요기업들의 실적 발표 3. 전거래일 급등세를 보인 게임, 엔터, NFT 관련주들의 단기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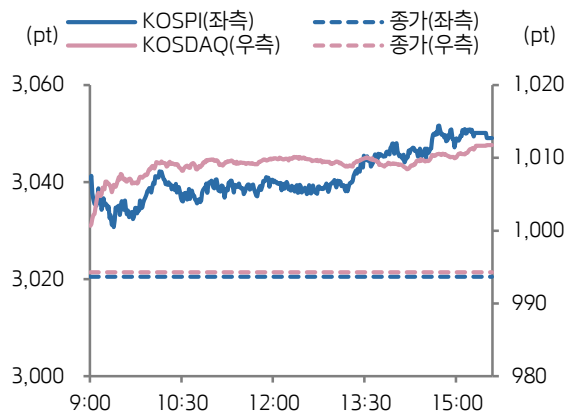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한동안 부진했던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이 최근 들어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, 델타 변이 확산, 인플레이션 발 경기 둔화 우려는 완화된 모습. 10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(113.8, 예상 108.0)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도, 소비 지출 의지는 오히려 개선됐다는 사실.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본격적인 소비시즌을 앞두고 물류대란, 병목현상과 같은 공급난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, 당초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 소비시즌도 견조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.

현재 시장은 악재에 대해 덜 예민해진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나, 미국 증시의 경우 연이은 신고가 경신에 대한 레벨 및 속도 부담이 재차 누적되고 있는 상황. 전 거래일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는 전강후약의 장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의 움직임처럼, 추후 공급망 문제, 미 의회의 예산안 처리 관련 뉴스플로우 등이 단기적인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. 또한 실적시즌인 만큼 기업들의 3 분기 실적 및 가이던스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므로, 업종간 종목간 차별화된 장세는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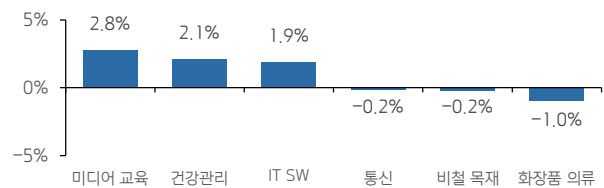
전거래일 SK 하이닉스, 현대차 등 주력 기업들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및 업황 전망 제시 효과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는 금일에도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장중 하락 전환,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의 시간외 주가 하락 등 미국 테크대장주들의 주가 부진이 국내 증시 장중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 존재. 다만, 국내 증시도 실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으므로, (그동안 실적 자신감 위축 여파로 주가가 소외됐던) 대형주들이 지수에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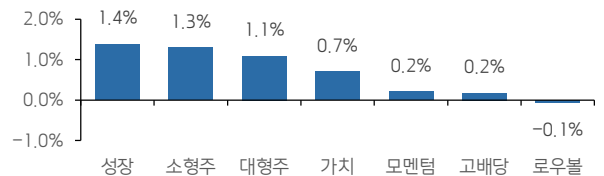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류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승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